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5일 월요일 음 11월 12일 (4월)

기상정보

호림

4-8℃

파고 1.5-2.5m

4-7℃

파고 1.5-2.5m

5-7℃

파고 1.5-2.5m

6-10℃

파고 1.5-2.5m

제주도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6℃, 낮 최고기온은 7-10℃로 예상된다. 7일 아침까지 기온이 낮아 춥겠으며 바람도 다소 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해돋이 07:23
해질 17:26

달돋이 15:30
달질 04:20

물때 만조 09:16
20:55

간조 02:47
15:30

식중독지수
경고

자외선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 주

20%

30%

성 산

20%

30%

고 산

30%

30%

서귀포

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많음

6/11℃

모레

구름많음

7/13℃

월드뉴스

멕시코 뜻밖의 관심, 한국은 다 김이박?

“한국 성씨 문화 인상적”

최근 외국인에게 혼란과 재미를 동시에 준 한국의 ‘김김김김김’ 수비라인이 멕시코 소셜미디어에서도 적잖은 관심을 끌었다.

멕시코 온라인 매체 마르카는 최근 ‘김, 박 그리고 이는 무슨 뜻? 한국 성씨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웹페이지에 게시했다.

“김, 이, 박 3개 성씨가 한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고 운을 뗀 이 매체는 “3개 성씨가 다수를 차지하는 배경에는 그들의 뿌리 깊은 봉건적 전통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놴다.

이 매체는 “오래전 한국에서는 성을 갖는다는 것이 양반층의 특권에 가까웠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성을 위조하거나 샀으며 그중에 왕

족 및 주요 양반 계층 성인 김, 이, 박을 가장 많이 선호해 특정 성씨 분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멕시코 통계청에 따르면 멕시코는 에르난데스, 가르시아, 마르티네스, 로페스, 곤살레스 5개의 성씨가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 이, 박’ 성씨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멕시코 국민 시각에서는 특정 성씨가 많은 한국이 인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월드컵에서 멕시코 응원하는 어린이. 연합뉴스

백록담

현영중

편집부국장

몇 년 전 ‘프렌치 프라이’를 놓고 원조 논쟁이 일었다. 벨기에가 자신이 원조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면서다. 벨기에에서 감자튀김은 ‘프리트(friter)’라고 불리우는 서민음식이다. 길거리에서 많이 파는데 주로 마요네즈를 곁들여 먹는다고 한다.

벨기에는 미군의 오페로 인해 프렌치 프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주장했다. 1차 세계대전 때 벨기에 왈로니아 지역에서 감자튀김을 처음 본 미군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주민들 때문에 이 지역을 프랑스로 착각하면서 비롯됐다고 설파

프렌치 프라이와 무초절임

했다. 프랑스는 대혁명 때 센강의 풍네프 다리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맞섰다. 이에 앞서 2012년엔 영국의 역사학자들이 브뤼셀에서 프렌치 프라이의 원조를 놓고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외국에서 무초절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주로 한국식 프라이드치킨을 파는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맛을 보곤 이에 빠져든다고 한다. 심지어 먹으라는 치킨은 안 먹고 무초절임의 일종인 치킨만만 구장창 먹어대는 이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최근엔 칼로리가 낮을 땀더러 저염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얼마 전엔 국내 한 방송 프로그램 통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이 치킨무를 파먹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분이 많아 닭고기의 딱딱함을 잡아주는 데다 상큼함으로 느끼함까지 덜어주기 때문

이다.

한국산 조미김의 인기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검은 종이(black paper)’를 무슨 맛으로 먹느냐던 이들도 한 번 맛을 보곤 순식간에 빠져든다고 한다. 미국·유럽 등에서 슈퍼푸드로 떠오르면서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 미국에선 웰빙 간식으로도 인기가 높다. 얼마 전엔 할리우드 인기 영화배우 휴 잭맨이 딸을 위해 김을 선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벤 애플렉의 딸이 마트에서 김을 먹는 모습이 사진으로 보도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을 찾을 때마다 마트의 조미김을 씹씹이해 가는 일본·중국인들의 김 사랑은 이미 유명하다.

제주의 수출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4월부터 7개월째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수축산물의 수출액도 1년 전에 비해 17.6%나 줄었다. 수산물 중에서도 넙

치·전복·기타 활어 등 주요 품목의 감소세가 확연하다. 농산물에선 감귤농축액·녹차·키위 등이 큰 폭 감소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감귤의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시장 다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정 국가·지역에 머물러서는 수출 증대는커녕 유지에도 버겁기 때문이다. 틈새시장 개척과 함께 새로운 시장 창출에도 투자·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러시아시장이 이를 방증한다. 값싼 중국산을 먹던 이들이 이제는 제주산 감귤로 입맛이 바뀌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연계상품 개발도 고민할 시점이다. 치킨+치킨무, 녹차+다기, 돼지고기+멸치 젓처럼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상품군을 발굴해야 한다. 상품이 아닌 문화를 수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열린마당

왜, 하논분화구를 복원·보존해야 할까

박 광 우
농학박사·한국중자은행자원보존협회장

제주도에는 약 5만 년 동안 자연이 만든 걸작품을 찾아낸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하논분화구·복원법국민추진위원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외국 전문가들이다. 하논분화구는 서귀포시 서홍동과 호근동에 걸쳐 위치한 대한민국 최대의 화산분화구로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넓은 눈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하논분화구에 있는 걸작품은 바로 화산분출 이후 저(低) 에너지의 화구호수 바닥에 쌓인 식물들의 꽃가루, 포자 및 지질학적 분진 등 각종 퇴적물의 존재이다. 5만 년 이래 대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양 승 빈
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일교차가 줄어들면서 쌀쌀한 날씨가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준다. 겨울철이 되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난방용품 사용이 급증한다. 오늘은 난방용품 안전 수칙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전기장판은 접지 말고 돌돌 말아서 보관해야 한다. 접어서 보관 시 전기장판 내 열선이 끊어져 고장과 함께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된다.

두 번째, 소비전력인 큰 전열 기구들은 문어발식 멀티탭을 사용할 시, 과부하로 인한 합선이 일어날

수 있어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피해야 하며, 콘센트에 쌓인 먼지가 고장과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이 좋다.

세 번째, KC 인증 등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으며 사고에 취약하다. 꼭 믿을 수 있는 KC 인증기관에서 통과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네 번째, 히터는 과일 또는 냄버져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벽과 거리를 두고 넘어지면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땐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금만 더 관심을 두고 노력한다면 화재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 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하자.

감귤 신제품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모둠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제품),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파나스, 레몬, 탕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 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실생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레드향 1~5년생

● 사라향 ● 탐나는봉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카라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제품 다수보유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제품]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제품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란?

▶전뿌리 형상과 뿌리손상 방지
▶미수익기간 단축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전뿌리 형상에 좋으며 미수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굴 / 금굴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제품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제품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게

농업회사법인(주) 장원농장

제1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3083 / 제2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감귤묘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2년생
● 미니향 2년생 ● 레몬3년생,
● 제라몬2년생 ● 미니몬1년생
● 하굴(아파나스)1~4년생

※ 극조생 & 조생

● 궁천조생1~3년생 ● 유라조생1~2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히노야까지 3년생
● 오하라배니와세(궁천변이) 1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한라봉 외

※ 탕자묘목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강정동465-1, 1013-1, 2327-1 하예동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